

“대~한민국, 태극전사 26명... 월드컵을 즐겨라”



안경 쓰고 나타난 손흥민 “저, 이상 없어요” 안면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손흥민이 12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스타디움 그라운드에서 등장에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와 골절상으로 수술을 한 한국 축구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2일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이름을 포함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생애 3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서게 됐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불의의 안와 골절상을 입어 월드컵에서 제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벤투 감독은 아이슬란드와 마지막 평가전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손흥민을 명단에 포함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훈련 가능 시점

벤투호, 최종 명단 발표... 손흥민 ‘마스크 투혼’ 예고 24일 오후 10시 남미축구의 강호 우루과이와 첫 격돌

과 관련해 “선수가 편안하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던 ‘골든보이’ 이강인(마요르카)은 극적으로 최종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이로써 만 21세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을 경험하게 됐다. 소속팀 전북 현대에서 시즌 막판 많은 경기를 뛰다가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현재 정상 훈련을 못하는 김진수도 벤투 감독의 마지막 부름을 받았다. 앞서 두 차례 월드컵을 부상으로 놓친 김진수는 2전 3기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4년 전 러시아 대회에 나서지 못한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와 공격형 미드필더 권창훈(김천 상무) 역시 생애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행 꿈을 이뤘다. 다만,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인 공격

2선에서 염원상(울산)이 탈락하고 송민규(전북)가 낙점받은 것은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선수들을 볼 때 개인 특성만 보는 게 아니라, 팀에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녹아드느냐도 본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또 마지막 27번째 ‘백업 자원’으로 스트라이커 오현규(수원)를 카타르에 데려가기로 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을 오현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들면서 “오현규는 카타르에서 팀과 함께 훈련하다가 선수단에 이상이 없으면 제외될 예정이고, 혹시 그의 포지션과 연관된 선수와 관련해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26명의) 리스트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별리그 H조에 속한 한국의 첫 상대는 우루과이로 24일 오후 10시에 격돌한다. 한국은 이어 28일 오후 10시 가나, 12월 3일 오전 0시 포르투갈과 각각 2, 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목표는 16강... 태극전사들 오늘 카타르 입성 손흥민 출전 여부 따라 베스트 11 변동 클 듯

이제 월드컵 그라운드에서 오르기 위한 마지막 경쟁만 남았다. 이제 벤투호는 14일 오전 결전지인 카타르로 떠나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벤투 감독은 어떤 전술을 바탕으로 어떤 선수를 선발로 내보낼지 결정해야 한다. 안와 골절상을 입은 손흥민, 햄스트링을 다친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 등 공수의 핵심 자원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서 벤투 감독이 골머리를 싸매는 것으로 보인다. 축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손흥민과 김진수가 모두 선발로 뛰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벤투 감독은 그간 많이 썼던 4-4-1-1, 내지는 4-2-3-1 전술을 우루과이와 1차전에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전방 공격은 그간 불박이 원톱으로 활용됐던 황의조(울림피아코스)가 맡을 전망이다. 다만 올 시즌 소속팀에서 극도로 부진한 황의조가 훈련 기간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K리그 득점왕에 오른 조규성(전북)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현재 경기력만 놓고 보면 조규성이 황의조 수준에 많이 근접했다”면서도 “벤투 감독이 황의조를 ‘간판’으로 여기는 만큼, 두 선수 선발 가능성은 ‘반반’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예 스피드와 골 결정력이 탁월한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는 ‘손톱’ 전술을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손톱’을 쓰지 않는다면 공격 2선 좌우에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을 배치하고 손흥민을 새도 스트라이커로 활용할 전망이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배치된다면 새도 스트라이커 자리는 활동량이 좋은 ‘작은’ 정우영(프라이부르크)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해 선발 출전이 불가능해진다면 황희찬이 원톱 선발로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원에서는 벤투 감독이 가장 많이 쓴 ‘큰’ 정우영(알사드)-황인범(울림피아코스) 조합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다. 포백 수비라인의 중앙에는 ‘베테랑’ 김영권(울산)과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좌우 풀백으로 누가 선발 출전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오른쪽 풀백으로는 측면에 머물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강한 윤종규(서울)나 김문환(전북)이 김태환(울산)보다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우루과이에는 현재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손꼽히는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만큼, 벤투 감독은 중원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언더래프’, 즉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잘하는 풀백을 쓸 거로 본다”면서 윤종규나 김문환의 선발 가능성을 점쳤다. 만약 김진수가 부상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왼쪽에 김문환, 오른쪽에 윤종규가 배치될 전망이다. 김문환은 전북에서 왼쪽 풀백으로 나선 경험이 있다. 벤투 감독도 11일 아이슬란드와 마지막 평가전에서 김문환을 교체 투입하면서 왼쪽에 배치했다. 골키퍼 장갑은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승규(알사바브)가 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대표팀 26명 명단

공격수(FW)



황의조
1992년생
183cm / 73kg
울림피아코스(그리스)



조규성
1998년생
189cm / 82kg
전북현대모터스

월드컵 개막

- 11월 21일 (한국시간)

한국대표팀 경기일정

- 11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
- 28일 오후 10시 **가나**
- 12월 3일 오전 0시 **포르투갈**



미드필더(MF)



정우영
1989년생
186cm / 78kg
알사드(카타르)



손준호
1992년생
178cm / 62kg
산둥 타이산 FC(중국)



백승호
1997년생
182cm / 72kg
전북현대모터스



황인범
1992년생
177cm / 70kg
울림피아코스(그리스)



이재성
1992년생
180cm / 70kg
FSV 마인츠05(독일)



권창훈
1994년생
174cm / 66kg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수비수(DF)



김민재
1996년생
190cm / 88kg
SSC 나폴리(이탈리아)



김영권
1990년생
186cm / 83kg
울산현대



권경원
1993년생
188cm / 83kg
감바오사키(일본)



조유민
1996년생
182cm / 70kg
대전하나시티즌



김문환
1995년생
173cm / 64kg
전북현대모터스



윤종규
1998년생
173cm / 64kg
FC서울

골키퍼(GK)



김승규
1990년생
187cm / 84kg
알사바브(사우디아라비아)



송범근
1997년생
194cm / 88kg
전북현대모터스



조현우
1991년생
189cm / 75kg
울산현대

감독



파울루 벤투
1969년생
포르투갈 출생

‘골든보이’ 이강인, 실력으로 벤투 마음 돌렸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포함 특급 조커로 활약 가능성

‘골든보이’ 이강인(21·마요르카)이 마침내 파울루 벤투 감독의 고집을 꺾고 생애 첫 월드컵에 나서게 됐다. 이강인은 12일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발표한 26명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벤투 감독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으나 올 시즌 소속팀에서 보여준 ‘무력 시위’를 바탕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A대표팀에 발탁한 인물이지만, 한동안 그를 찾지 않았다. 장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탐압력 등에서 강점을 가진 그는 수비 가담과 체력 등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월드컵을 앞둔 이번 시즌에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14경



이강인

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리며 소속팀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축구 선수 이적은 전문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크트는 이달 이강인의 몸값을 마요르카 선수 중 1위인 1200만유로(약 164억원)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강인이 시즌 초반 라리가에서 1골 3도움으로 활약하자, 벤투 감독은 9월 A매치 기간 그를 불러들였다. 1년 6개월 만의 대표팀 복귀였다. 하지만 당시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평가전에서 이강인에게 1분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두 경기에서 180분간 벤치만 지킨 이강인은 “소속팀에 돌아가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그리고는 지난달 소속팀 복귀 뒤 친정팀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보란 듯 시즌 2호 골을 터트렸다. 이를 지켜본 벤투 감독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를 선택했다. 선수 기용에 있어 보수적인 벤투 감독이 그간 손발을 맞추지 않은 선수를 선택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전은 아니더라도 ‘특급 조커’로 제 몫을 해낼 가능성은 있다. 이강인은 2019년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준우승에 기여했고, 최우수선수 상인 골든볼까지 받은 기대주다. 벤투 감독은 명단 발표 후 이강인 발탁 배경에 대해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게 장점인 선수다. 몇가지 부분에서 발전을 보였기에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